

대학마다 高3 수험생 구제 방안 ‘속속’

비교과 활동반영 최소화·수능 최저학력 기준완화 검토

코로나 사태로 고교 학사 운영 차질 입시서 피해 보지 않도록 대안 고민
교육부, 다음 달 중 대입 대책 발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일선 고교에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학들이 고3 수험생 구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3이 올해 입시에서 재수생보다 피해를 보지 않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등교 개학이 지연된 고3 재학생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재수생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내 비교과 활동 반영 최소화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는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학종에서 평가 요소를 줄였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상대로 비교과 활동 가운데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나 봉사활동, 체험학습 관련



지난해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순천향대 상담부스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상담을 받고 있다. /순천향대

점수는 3학년 부분을 빼고 1~2학년 때까지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정했다.

출결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결손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고3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3 학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세부사항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1년 10개월 전에 수립한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으로 공표된 것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대교협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교협은 이들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변경 사항을 심의 중이다.

고려대 등 서울 소재 일부 대학도 고3 수험생 '구제 방안'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는 올해 입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재수생보다 고3 수험생이 불리하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이뤄졌다. 코로나로 인해 고3 학생들은 거의 석 달 가까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대면 강의 대신, 뒤늦게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서 여름방학이 짧게는 일주일가량인 곳도 있는 상황이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서 바로 2학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올해 대입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3 구제 방안보다는 면접이나 실기 등 전반적인 대입 전형 운영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방 교육청도 올해 대입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고3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최저 수준일 정도로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다른 대학들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올해 대입에서 고3과 재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공통적인 대책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학별로 진행되는 대입방식 변경이 지나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김민수 가톨릭관동대 입학처장)는 의견문을 통해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교육이념과 대학 상황에 맞춰 평가방법과 전형요소의 반영을 다르게 하면서 전형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과도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전형 운영 방법의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대부분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3학년 1학기에 수상실적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세계 100위 이내 국내 대학 6곳... 역대 최대

영 QS 세계 대학평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사에서 실시하는 세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37위) ▲KAIST(39위) ▲고려대(69위) ▲포스텍(77위) ▲연세대(85위) ▲성균관대(88위) 등 국내 대학 6곳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QS가 10일 공개한 '2020 세계 대학평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중 서울대가 37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100위 내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국내 대학 6곳이 포함됐다. 2003년 QS 세계 대학평가가 시작된 이후 국내 대학이 100위 안에 6곳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한 KAIST는 전년 대비 2계단 순위가 올라 세계 39위에 올랐다.

고려대도 7년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6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

다 14계단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국내 종합사립대 중에서는 6년 연속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2016년 최초로 100위권에 진입한 이후 5년 만에 60위권에 진입할 만큼 고려대의 상승세는 매우 가파르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100위 안에 입성 고려대 7년째 가파른 상승세... 69위

고려대의 이 같은 순위 상승의 주요 요인은 '졸업생 평판도'로 분석된다. 졸업생 평판도는 지난해 대비 18계단 상승하며 41위를 차지했다.

포스텍도 지난해보다 순위가 10계단 상승해 77위를 기록했다. 포스텍은 국내 대학 가운데 논문 피인용 횟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85위로 전년 104위에서 19

계단 상승했다. 이어 ▲성균관대가 88위 ▲한양대 146위 ▲경희대 236위 ▲광주과학기술원(295위) ▲이화여대(333위) ▲한국외대(392위) ▲중앙대(403위) ▲동국대(456위) ▲가톨릭대(456위) ▲서강대(490위)순이다.

이밖에 500위권에는 ▲울산대(521-530위) ▲인하대(531-540위) ▲아주대(551-560위) ▲한림대(551-560위) ▲건국대(551-560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순위로는 미국 MIT, 스탠퍼드대, 하버드대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국내 종합사립대학 순위로는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가 85위, 성균관대가 88위를 차지했다.

올해 QS 세계대학 평가는 전 세계 5546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지표는 ▲학계 평가(40%)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 1인당 학생 수(20%) ▲졸업생 평판도(10%) ▲외국인 교수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 등 총 6개다. /이현진 기자



6. 10.(수) 15:30~ 장소 | 도봉구청 10층 대강홀 (오른쪽부터) 김일목 삼육대 총장, 이시우 효문고 교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강수경 덕성여대 총장 /삼육대

삼육대, 도봉구와 지역인재 육성 맞손

효문고 학생 대상 인재 육성 사업

삼육대가 서울시 도봉구, 효문고와 손잡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

삼육대는 지난 10일 도봉구, 효문고, 덕성여대와 도봉구청 강송홀에서 '2020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고교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삼육대는 도봉구로

부터 3200여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관내 효문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삼육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소장 한금운)는 ▲창의성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동아리 활동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한 방과후 학교 ▲진로·진학 정보제공 등 3개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미생물로 배우는 생명과학 ▲로봇 동아리(아두이노와 로봇) ▲평화인권지킴이 ▲도심 속 문화유산 산책 ▲진로 탐색 특강 ▲생명과학 진로 체험 등이다. /이현진 기자

경상대,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 착수... 1회 충전으로 반나절 비행

사용되는 수소, 바닷물 전기분해

경상대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가 단 한 번의 수소연료전지 충전으로 반나절 비행할 수 있는 드론 개발에 나섰다. 이때 사용되는 수소는 바닷물을 직접 전기분해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린에너지다.

경상대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0년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총 연구비 80억원을 지원받



양전지 ▲웨어러블 전자기기용 센서 등의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친환경고효율 미래 에너지 소재·소자 연구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이다.

연구소는 ▲열감응센서와 유연 태양전지 소재 개발 ▲고용량 2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수소에너지 변환용 소재 연구 ▲지능형 에너지 부품·플랫폼 개발 4개 과제를 수행기로 했다.

남상용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 소장(사진)은 "경남 지역의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거점연구소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첨단에너지분야를 개척하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송실대, '이공계 대학연구소 지원' 사업 선정

2028년까지 최대 67억 지원

송실대는 안전보건환경융합연구소(iSHE)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이공계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송실대 연구소가 이공계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것은 16년 만이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1980년부터 우수한 이공 분야 대

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대학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학술 지원 사업이다.

송실대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해 1단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1억원을 지원받으며, 3단계에 걸쳐 2028년까지 최장 9년간 최대 6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현진 기자